

WEBVTT

00:00:09.472 --> 00:00:12.597

우리 이번에는 15강
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12.697 --> 00:00:14.738

문법 요소 두 번째 시간이고요.

00:00:14.838 --> 00:00:17.628

부정 표현하고 시간 표현을
들어가도록 할게요.

00:00:17.728 --> 00:00:21.702

먼저 첫 번째, 안 부정문과
못 부정문을 볼 텐데

00:00:21.802 --> 00:00:25.374

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
범위를 정해야 될 겁니다.

00:00:25.474 --> 00:00:27.606

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

00:00:27.706 --> 00:00:30.504

형식적인 부정문을
다루고자 하는 거예요.

00:00:30.604 --> 00:00:34.256

그래서 부정의 어감을 가지고
있는 어휘들이 좀 있습니다.

00:00:34.356 --> 00:00:37.844

그런데 그 어휘를 사용해서
부정의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

00:00:37.944 --> 00:00:40.635

애네들에서 다뤄야 될 영역이
아닐 수는 있습니다.

00:00:40.735 --> 00:00:46.850

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일명
어휘 부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.

00:00:46.950 --> 00:00:49.337

예를 들어 볼게요.

00:00:49.437 --> 00:00:52.773

나는 학생이다.

00:00:52.873 --> 00:00:54.945

이거를 부정하고 싶어요.

00:00:55.045 --> 00:00:59.834

그러면 이렇게 쓸 수
있죠, 학생이 아니다.

00:00:59.934 --> 00:01:05.569

그러면 여기서는
A이다, 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를

00:01:05.669 --> 00:01:09.436
대응되는 형용사인 아니다로 바뀌서
부정을 만들어낸 거예요.

00:01:09.536 --> 00:01:14.512
또 그는 굉장히 전문적이다.

00:01:14.612 --> 00:01:19.434
역시 이다가 있는데
전문적이 아니다,

00:01:19.534 --> 00:01:20.939
이렇게 쓸 거는 아니고.

00:01:21.039 --> 00:01:22.648
이번에는 이렇게 쓸 수 있죠.

00:01:22.748 --> 00:01:25.904
앞에 한자어 접두사로 좀 써줘.

00:01:26.004 --> 00:01:29.011
비라는 접두사.

00:01:32.124 --> 00:01:35.158
비전문적이다, 이런 식으로
쓸 수 있잖아요.

00:01:35.258 --> 00:01:39.841
우리 비라든지 무라든지,
이런 것들 넣어주면서

00:01:39.941 --> 00:01:43.805
부정을 만들 수 있는
방법이 있었던 것이고.

00:01:43.905 --> 00:01:46.598
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휘.

00:01:46.698 --> 00:01:52.230
뭐가 있다, 아니면 알다,
이런 것들을 부정했을 때

00:01:52.330 --> 00:01:57.003
~없다, 알다의 부정으로 모르다.

00:01:57.103 --> 00:01:58.701
이런 거 써줄 수 있잖아요.

00:01:58.801 --> 00:02:01.190
나는 그 정답을 안다,
정답을 모른다.

00:02:01.290 --> 00:02:02.565
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.

00:02:02.665 --> 00:02:04.880
그러면 애네들이 나왔을
때는 어휘를 이용해서

00:02:04.980 --> 00:02:07.313

부정의 느낌을 주기는 하여도

00:02:07.413 --> 00:02:09.234

그러나 이런 거를 썼다고 해서

00:02:09.334 --> 00:02:11.943

우리가 부정 표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2:12.043 --> 00:02:14.283

이거는 만약에 어휘
부정문이라고 해서

00:02:14.383 --> 00:02:17.501

추가로 보기에 주지 않는 한,
이번에 다루지 않습니다.

00:02:17.601 --> 00:02:25.132

오히려 내용상은 긍정의
느낌은 준다고 할지라도

00:02:25.232 --> 00:02:28.215

그것이 오히려 부정 표현으로
다뤄야 할 예가 있을 거예요.

00:02:28.315 --> 00:02:31.268

그게 어떤 경우냐.

00:02:52.271 --> 00:03:05.707

그는 착한 마음이 없지는
않았다, 이런 식으로.

00:03:05.807 --> 00:03:09.955

예를 들면 스쿠르지 같이 나쁜 사람인
줄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

00:03:10.055 --> 00:03:12.853

그런데 그 사람이 착한 마음이
조금은 있었다는 이야기죠.

00:03:12.953 --> 00:03:15.433

착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.

00:03:15.533 --> 00:03:17.694

일부는 있었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.

00:03:17.794 --> 00:03:19.926

이거는 긍정 표현이죠.

00:03:20.026 --> 00:03:23.319

착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는
이야기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.

00:03:23.419 --> 00:03:24.960

그러니까 의미상, 잘 보세요.

00:03:25.060 --> 00:03:26.918

이런 거 없지는 않았다
이렇게 나오면,

00:03:27.018 --> 00:03:32.828

의미상으로는 긍정이지 않습니까?

00:03:32.928 --> 00:03:35.341

그런데 우리는 예를 부정
표현에서 다를 거란 말이에요.

00:03:35.441 --> 00:03:36.425

뭐 때문이야?

00:03:36.525 --> 00:03:38.501

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.

00:03:38.601 --> 00:03:41.737

이제 왜 우리는 이 세
가지는 다루지 않고

00:03:41.837 --> 00:03:45.055

애를 다뤄야 되는지를
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3:45.155 --> 00:03:46.519

먼저 보도록 하죠.

00:03:46.619 --> 00:03:50.934

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
먼저 첫 번째 나누는데요.

00:03:51.034 --> 00:03:52.837

구분은 이렇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.

00:03:52.937 --> 00:03:56.696

동사, 그리고 형용사, 그다음에
합성어나 파생어 계열 쪽.

00:03:56.796 --> 00:03:58.579

이쪽으로 해서 나눠볼 텐데.

00:03:58.679 --> 00:04:04.459

이 부정 표현의 경우에는 실제로 학교
용법에서 구분하여 다루기는 하지만

00:04:04.559 --> 00:04:08.420

수능에서 문제를 내기는 좀 까다로운
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

00:04:08.520 --> 00:04:12.702

왜냐하면 이 용어들에 따라
동사라고 해서 다 되고

00:04:12.802 --> 00:04:15.640

형용사는 일부 안 되고 이렇게
구분이 되어 있기는 한데,

00:04:15.740 --> 00:04:18.396

단어 자체의 의미 때문에
부정 표현이 어색한 경우도

00:04:18.496 --> 00:04:19.805

분명 있을 거거든요.

00:04:19.905 --> 00:04:23.202

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만 먼저
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.

00:04:23.302 --> 00:04:25.377

그래서 먹다의 경우에
먼저 안이나 못 부정문.

00:04:25.477 --> 00:04:31.243

앞에 부정 부사를 붙이는
방법을 선택합니다.

00:04:31.343 --> 00:04:34.867

저는 밥을 안 먹어요,
이렇게 이야기하면

00:04:34.967 --> 00:04:37.119

내 의지로 안 먹는 거예요.

00:04:37.219 --> 00:04:40.404

저는 술을 안 마셔요, 라고
하면 의지로 안 마십니다.

00:04:40.504 --> 00:04:44.265

다음, 저 밥 못 먹어요.

00:04:44.365 --> 00:04:47.188

이러면 능력이 안 된다는 거,
배가 너무 부르다든지.

00:04:47.288 --> 00:04:49.373

저 술 못 마셔요, 라고 이야기하면

00:04:49.473 --> 00:04:52.316

한 잔만 마시면 주사가
옆에 사람을 때린다든지

00:04:52.416 --> 00:04:53.923

그래서 마시면 안 된다.

00:04:54.023 --> 00:04:56.365

아니면 저 지금 차 운전해야
되기 때문에 못 마신다.

00:04:56.465 --> 00:04:57.870

이런 표현 쓸 수 있는 거죠.

00:04:57.970 --> 00:04:59.239

그래서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.

00:04:59.339 --> 00:05:00.705

의지의 부정이라고 하고

00:05:00.805 --> 00:05:02.343

능력의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.

00:05:02.443 --> 00:05:05.247

그래서 안은 원래
본딧말은 아니에요.

00:05:05.347 --> 00:05:07.995

그런데 그 아니가 줄어들어서

안으로 쓸 수 있는 건데

00:05:08.095 --> 00:05:11.500
우리가 일상에서는 아니 먹다보다
안 먹다를 더 선호하게 되죠.

00:05:11.600 --> 00:05:13.417
그래서 안 먹다, 못 먹다.

00:05:13.517 --> 00:05:18.796
첫 번째 방법은 바로 부정 부사죠.

00:05:18.896 --> 00:05:20.714
부정 부사를 선택합니다.

00:05:20.814 --> 00:05:24.816
그런데 이렇게 부정 부사는 고작
1, 2음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

00:05:24.916 --> 00:05:27.962
용언의 앞에 수식해주는
개념으로 써도

00:05:28.062 --> 00:05:30.646
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.

00:05:30.746 --> 00:05:32.584
일명 짧은 부정문이라고 하고

00:05:32.684 --> 00:05:36.226
짧은 안 부정문, 짧은 못
부정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.

00:05:36.326 --> 00:05:38.407
다른 방법도 한번 써볼까요?

00:05:38.507 --> 00:05:42.500
이번에는 종결 어미의 형태인
이 먹다에서의 다를

00:05:42.600 --> 00:05:45.218
어미를 좀 바꿔보겠습니다.

00:05:45.318 --> 00:05:46.716
먹지로요.

00:05:46.816 --> 00:05:48.698
그러면 이때는 연결 어미가 되었고

00:05:48.798 --> 00:05:51.044
이 뒤에는 용언이
더 올 수도 있다는 거죠.

00:05:51.144 --> 00:05:55.768
그래서 먹지 않다, 또 먹지
못하다로 붙여본 겁니다.

00:05:55.868 --> 00:05:59.136
이번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?

00:05:59.236 --> 00:06:03.592

보조 용언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어요.

00:06:03.692 --> 00:06:06.357

이렇게 되면 이 먹지
않다나 먹지 못하다가

00:06:06.457 --> 00:06:08.317

하나의 서술어로 인정을 받게 되죠?

00:06:08.417 --> 00:06:13.274

이때 지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
이어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되고요.

00:06:13.374 --> 00:06:16.051

그래서 이때 의미는
어차피 똑같습니다.

00:06:16.151 --> 00:06:19.935

안 먹다나 먹지 않다나,
못 먹다나 먹지 못하다나

00:06:20.035 --> 00:06:22.937

각각 의지의 부정이나 능력의
부정이라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.

00:06:23.037 --> 00:06:24.260

그런데 길이를 봤을 때,

00:06:24.360 --> 00:06:25.883

아까 안 먹다는 3음절인데

00:06:25.983 --> 00:06:27.383

먹지 않다는 4음절.

00:06:27.483 --> 00:06:28.840

못 먹다, 3음절인데

00:06:28.940 --> 00:06:32.123

먹지 못하다, 5음절이 되는
거니까 길어졌다고 보는 거죠.

00:06:32.223 --> 00:06:34.846

그래서 이렇게 보조
용언을 이용하는 방식을

00:06:34.946 --> 00:06:37.367

긴 부정문이라고
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

00:06:37.467 --> 00:06:40.485

그래서 부정 부사를 이용하는
거는 짧은 부정문,

00:06:40.585 --> 00:06:42.892

보조 용언을 이용하는
방법은 긴 부정문.

00:06:42.992 --> 00:06:44.586

바로 이 두 가지예요.

00:06:44.686 --> 00:06:46.010

아시겠습니까?

00:06:46.110 --> 00:06:49.718

형식적으로 애네들은 용어
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.

00:06:49.818 --> 00:06:52.154

이런 어휘 부정문은.

00:06:52.254 --> 00:06:54.688

그런데 우리가 지금
다루고자 하는 것은

00:06:54.788 --> 00:06:58.426

어휘, 없다는 말
자체는 유지를 해주되

00:06:58.526 --> 00:06:59.601

그것이 어떻게요?

00:06:59.701 --> 00:07:02.762

뒤에 보조 용언 등이나 앞에
있는 부사들을 이용해서

00:07:02.862 --> 00:07:06.054

확장을 하는 거죠,
어절을 늘려주고요.

00:07:06.154 --> 00:07:08.671

그래서 문장의 형식이
좀 바뀌기 때문에

00:07:08.771 --> 00:07:10.942

그래서 애네들을 우리가
다루고자 하는 겁니다.

00:07:11.042 --> 00:07:13.387

그래서 이쪽이 부정이
아니라는 게 아니에요.

00:07:13.487 --> 00:07:15.791

부정은 맞지만 우리가
다루고자 하는 것은

00:07:15.891 --> 00:07:18.196

형태상 부정을 따져본다.

00:07:18.296 --> 00:07:20.906

바로 이 부정 부사나 보조
용언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

00:07:21.006 --> 00:07:25.129

동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
형용사를 보도록 할게요.

00:07:25.229 --> 00:07:28.186

형용사의 부정은 이렇게 두 가지,

00:07:28.286 --> 00:07:30.473

안 부정, 못 부정문
다 쓸 수 있는가.

00:07:30.573 --> 00:07:32.765
안 넣어볼까요?

00:07:32.865 --> 00:07:35.087
그녀는 안 예쁘다,
그녀는 아니 예쁘다.

00:07:35.187 --> 00:07:36.861
어때요? 가능합니다.

00:07:36.961 --> 00:07:41.730
그런데 뉘앙스가 의지로
부정한 거는 아니죠.

00:07:41.830 --> 00:07:44.872
나는 안 예뻐요, 라고 이야기했는데

00:07:44.972 --> 00:07:48.824
그것이 의지로 되는
거라면 예뻐지면 되죠.

00:07:48.924 --> 00:07:54.038
그런데 이 예쁘다 형용사는
의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.

00:07:54.138 --> 00:07:55.230
따라서 어떻게 된다?

00:07:55.330 --> 00:07:57.683
이거를 상태가 부정되는
것이라고 보고

00:07:57.783 --> 00:07:59.012
상태의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.

00:07:59.112 --> 00:08:01.424
그래서 안 예쁘다, 이렇게
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.

00:08:01.524 --> 00:08:03.622
이번에는 못 부정문
한번 넣어볼까요?

00:08:03.722 --> 00:08:06.103
나는 못 예쁘다,
그녀는 못 예쁘다.

00:08:06.203 --> 00:08:09.210
어떻습니까? 굉장히 좀
어색한 느낌이 들죠.

00:08:09.310 --> 00:08:11.894
네 맞아요, 어색한 게 정상이에요.

00:08:11.994 --> 00:08:16.916
그래서 짧은 못 부정문의 경우에는
붙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.

00:08:17.016 --> 00:08:18.829
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.

00:08:18.929 --> 00:08:23.503

그다음에 긴 형용사
부정문 해볼까요?

00:08:23.603 --> 00:08:26.150

그러면 역시나 종결
어미인 다 대신에

00:08:26.250 --> 00:08:28.006

예쁘지, 라는 연결 어미 넣어주고

00:08:28.106 --> 00:08:33.016

보조 용언 않다나 또는
못하다를 넣어주려고 합니다.

00:08:33.116 --> 00:08:36.505

그녀는 예쁘지 않다,
긴 부정문이요.

00:08:36.605 --> 00:08:40.038

역시나 상태를 이야기해주는
거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.

00:08:40.138 --> 00:08:41.901

그다음 거 넣어볼게요.

00:08:42.001 --> 00:08:44.246

그녀는 예쁘지 못하다.

00:08:44.346 --> 00:08:45.781

어떻습니까?

00:08:45.881 --> 00:08:49.010

아까 전에 못 예쁘다는
어색하다고 봤잖아요.

00:08:49.110 --> 00:08:51.313

그러면 그녀는 예쁘지
못하다는 어때요?

00:08:51.413 --> 00:08:52.862

쫄 수 있다?

00:08:52.962 --> 00:08:55.549

글쎄, 쫄 수 있는 것 같기도
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.

00:08:55.649 --> 00:08:58.097

네 쫄 수 있습니다,
일부의 경우.

00:08:58.197 --> 00:09:00.416

그러나 그때는 이렇게
쓰이게 되는 거예요.

00:09:00.516 --> 00:09:02.791

형용사의 긴 부정문인 경우에는,

00:09:02.891 --> 00:09:04.460

딱 이 어감만 줍니다.

00:09:04.560 --> 00:09:06.227

상태에 도달하지 못함.

00:09:06.327 --> 00:09:09.986

여기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
기대에 미치지 못하다,

00:09:10.086 --> 00:09:11.905

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.

00:09:12.005 --> 00:09:16.130

수술을 10번이나 했는데 아직도
예쁘지 못해, 이런 식으로.

00:09:16.230 --> 00:09:19.098

수술을 10번이나 했는데
아직도 못 예뻐.

00:09:19.198 --> 00:09:20.798

이렇게 하는 거는 어색하지만

00:09:20.898 --> 00:09:23.308

수술을 10번이나 했는데
아직 예쁘지 못해.

00:09:23.408 --> 00:09:24.996

이런 표현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9:25.096 --> 00:09:27.150

그래서 내가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

00:09:27.250 --> 00:09:32.373

그 기대한 상태에 미치지 못함을
아쉬워하는 그런 느낌을 줄 때는

00:09:32.473 --> 00:09:34.270

가능한 거로 보면 되겠고요.

00:09:34.370 --> 00:09:37.780

그렇지 않은 능력의 부정으로
그냥 다른 느낌으로 본다?

00:09:37.880 --> 00:09:39.484

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.

00:09:39.584 --> 00:09:41.300

그래서 일반 부정의 느낌이라기보다는

00:09:41.400 --> 00:09:44.247

이런 어감을 주는 부정이라고
볼 수가 있습니다.

00:09:44.347 --> 00:09:50.005

그러면 선생님, 동사의 경우에는
짧은 안 부정문과 긴 안 부정문,

00:09:50.105 --> 00:09:52.463

또 짧은 못 부정문, 긴
못 부정문 다 쓰고

00:09:52.563 --> 00:09:55.701

형용사는 짧은 못
부정문만 못 쓰는 거,

00:09:55.801 --> 00:09:57.263

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까?

00:09:57.363 --> 00:09:58.419

그렇지는 않아요.

00:09:58.519 --> 00:10:00.692

이거는 일반론을
말씀드리는데 것일 뿐이지

00:10:00.792 --> 00:10:02.498

여러분이 모든 동사에 다 적용하고

00:10:02.598 --> 00:10:04.941

모든 형용사에 다 적용하고
이러기가 좀 어렵습니다.

00:10:05.041 --> 00:10:08.618

예를 들면 견디다 한번 가볼게요.

00:10:14.832 --> 00:10:17.935

정말 못 견뎌서, 나는 못 견뎌서.

00:10:18.035 --> 00:10:21.586

견디다, 라는 것이 이미 자신의
의지와 관련된 부분인데.

00:10:21.686 --> 00:10:28.423

이거는 의지가 거기까지 미치지
못함을 표현하기 위해서

00:10:28.523 --> 00:10:30.896

못 부정문을 쓴 거예요.

00:10:30.996 --> 00:10:33.871

그런데 여기에 안
견디다, 라는 거.

00:10:33.971 --> 00:10:35.495

이상하지 않습니까?

00:10:35.595 --> 00:10:37.437

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표현.

00:10:37.537 --> 00:10:41.267

자신의 의지로 이루고자 하는
그런 의도가 담겨 있을 때

00:10:41.367 --> 00:10:44.210

이런 표현이 어색할
수밖에 없을 거예요.

00:10:44.310 --> 00:10:45.425

다음요.

00:10:45.525 --> 00:10:47.534

바람이 분다.

00:10:47.634 --> 00:10:51.439
바람이 안 분다, 바람이 못 분다.

00:10:51.539 --> 00:10:54.640
바람이 못 분다,
어색하지 않습니까?

00:10:54.740 --> 00:10:57.853
지금 사전에 보면 이
견디다나 불다,

00:10:57.953 --> 00:11:00.742
이거 원형이 불다죠?

00:11:00.842 --> 00:11:02.594
바람이 불다.

00:11:02.694 --> 00:11:04.299
이거 전부 다 동사 맞아요.

00:11:04.399 --> 00:11:06.969
그런데 동사인데 지금
일부 단어들을 보면

00:11:07.069 --> 00:11:08.979
안이나 못 부정문을 둘
다 쓰는 게 아니라

00:11:09.079 --> 00:11:11.166
한쪽이 어색한 경우가
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

00:11:11.266 --> 00:11:14.115
그런데 애는 또 왜 못
부정문이 안 되는 거냐?

00:11:14.215 --> 00:11:16.179
애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

00:11:16.279 --> 00:11:18.376
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
아니기 때문에

00:11:18.476 --> 00:11:21.134
능력의 부정이라는 표현을
쓰기 어려웠던 거죠.

00:11:21.234 --> 00:11:25.779
그러니까 무슨 자연의 현상
같은 것이 능력이 있습니까?

00:11:25.879 --> 00:11:28.726
애네들은 그냥 되고 안 되고의
문제만 있을 뿐이죠.

00:11:28.826 --> 00:11:31.103
그래서 제가 다시
한 번 말씀드리지만

00:11:31.203 --> 00:11:33.561

모든 동사에 적용할 수 있는 거,

00:11:33.661 --> 00:11:35.629

모든 형용사에 적용할 수
있는 거는 아니에요.

00:11:35.729 --> 00:11:38.959

그래서 출제자들이 이쪽을 좀
꺼리는 이유가 있어요.

00:11:39.059 --> 00:11:41.554

그래서 보기에 주어진
예문들만 가지고

00:11:41.654 --> 00:11:43.265

어느 상황에는 되고 안 되고

00:11:43.365 --> 00:11:45.468

이런 것들을 해석하는
쪽으로 기억하면 되지

00:11:45.568 --> 00:11:48.130

기본 틀은 그냥 짧은 안
부정문, 짧은 못 부정문,

00:11:48.230 --> 00:11:50.787

긴 안 부정문, 긴 못 부정문
두 가지 형태가 있어.

00:11:50.887 --> 00:11:52.414

그다음에 동사의 경우에는

00:11:52.514 --> 00:11:55.470

크게 아주 일부 예들을
제외하면 문제가 없는데

00:11:55.570 --> 00:11:58.743

형용사의 경우에는 짧은 못
부정문이 붙는 게 좀 어려웠고

00:11:58.843 --> 00:12:01.838

긴 못 부정문이 붙었을
때에는 기대를 했는데

00:12:01.938 --> 00:12:04.133

그 상태에 미치지 못함을
표현하는 부정이구나.

00:12:04.233 --> 00:12:06.348

이 정도로 정리해주자는
이야기입니다.

00:12:06.448 --> 00:12:10.911

이번에는 결혼하다, 이
단어를 좀 볼게요.

00:12:11.011 --> 00:12:14.318

결혼하다는 일단 동사입니다.

00:12:14.418 --> 00:12:21.560

동사니까 원래는 안, 못, 긴 안,

긴 못 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

00:12:21.660 --> 00:12:26.016

그런데 애는 특이점이
뭐냐면, 애는 파생어죠.

00:12:26.116 --> 00:12:32.534

결혼이라는 명사에 뒤에 하다라는 접사가
붙어서 파생어가 만들어진 거죠.

00:12:32.634 --> 00:12:33.991

합성어 아니고요.

00:12:34.091 --> 00:12:38.012

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.

00:12:39.195 --> 00:12:43.127

그러면 이 결혼하다, 이
파생어를 가지고 만들어보자고요.

00:12:43.227 --> 00:12:47.010

예를 들면 안 결혼하다.

00:12:47.110 --> 00:12:48.663

그녀는 안 결혼하다.

00:12:48.763 --> 00:12:50.768

합성어도 한번 넣어볼게요.

00:12:50.868 --> 00:13:00.106

이거 PPT를 수정해줘야
되겠지만, 오가다.

00:13:00.206 --> 00:13:06.067

그다음에 애는 파생어죠.

00:13:06.167 --> 00:13:08.386

뉘앙스만 보자는 이야기예요.

00:13:08.486 --> 00:13:10.591

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
그런 거는 아니예요.

00:13:10.691 --> 00:13:12.379

그래서 그녀는 안 결혼했다.

00:13:12.479 --> 00:13:14.596

그녀는 안 오갔다.

00:13:14.696 --> 00:13:17.539

어떻습니까?

00:13:17.639 --> 00:13:19.261

이번에는 못 넣어볼까요?

00:13:19.361 --> 00:13:21.053

그녀는 못 결혼했다.

00:13:21.153 --> 00:13:25.506

그는 못 오갔다.

00:13:25.606 --> 00:13:28.563

어떻습니까? 어색한
느낌이 좀 드나요?

00:13:28.663 --> 00:13:32.272

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파생어나
합성어 계열이 나왔을 때,

00:13:32.372 --> 00:13:33.455

다 그렇지 않아요.

00:13:33.555 --> 00:13:35.134

쓸 수 있는 것도 워낙 많습니다.

00:13:35.234 --> 00:13:38.829

그러나 파생어, 합성어
쪽에서는 대다수의 많은 것들이

00:13:38.929 --> 00:13:43.302

짧은 못 부정문을 쓰는 것이
상당히 어색한 경향을 보여요.

00:13:43.402 --> 00:13:46.555

그에 반해 이렇게 지를 썼을 때에는

00:13:46.655 --> 00:13:50.992

역시 마찬가지로 오가 지로
바뀌야 되겠죠.

00:13:51.092 --> 00:13:52.350

넣어볼까요?

00:13:52.450 --> 00:13:55.635

결혼하지 않았다, 결혼하지 못했다.

00:13:55.735 --> 00:13:58.236

오가지 않았다, 오가지 못했다.

00:13:58.336 --> 00:14:01.135

이렇게 쓰는 것이 괜찮다는 겁니다.

00:14:01.235 --> 00:14:05.220

그래서 한 가지 또
기억해야 되는 것은

00:14:05.320 --> 00:14:22.912

합성어나 파생어 계열에서 짧은
부정이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다,

00:14:23.012 --> 00:14:25.182

이 정도를 추가해주면 되겠어요.

00:14:25.282 --> 00:14:26.926

이 정도 기억하시고.

00:14:27.026 --> 00:14:29.527

다음, 이번에는 특이한
부정을 보도록 하죠.

00:14:29.627 --> 00:14:31.062

말다 부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.

00:14:31.162 --> 00:14:33.677

우리는 지금까지 안 부정문, 못 부정문 두 가지만 봤잖아요?

00:14:33.777 --> 00:14:35.564

말다 부정문을 보도록 할 텐데.

00:14:35.664 --> 00:14:41.361

가다, 이거는 동사 가다죠.

00:14:41.461 --> 00:14:43.433

명령을 했어요, 가라.

00:14:43.533 --> 00:14:46.476

그런데 이 명령문을 부정을 하고 싶어요.

00:14:46.576 --> 00:14:49.330

아까 전에 안 부정문하고 못 부정문은

00:14:49.430 --> 00:14:52.000

명령문을 부정하는 식으로는 불가능하죠.

00:14:52.100 --> 00:14:54.455

예를 들면 가지
않아라, 가지 못해라.

00:14:54.555 --> 00:14:55.962

이런 식으로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.

00:14:56.062 --> 00:14:59.417

따라서 애를 부정하기 위해서는
가지 마라, 가지 말아라.

00:14:59.517 --> 00:15:02.209

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
없다는 이야기죠.

00:15:02.309 --> 00:15:04.934

또 형용사는 어떨까요?

00:15:05.034 --> 00:15:07.774

춥다, 애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?

00:15:07.874 --> 00:15:10.840

그런데 아까 말다의 경우에는

00:15:10.940 --> 00:15:16.650

이렇게 명령이나 청유의 부정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.

00:15:16.750 --> 00:15:31.427

사실 명령하고 청유문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00:15:31.527 --> 00:15:33.920

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.

00:15:34.020 --> 00:15:38.281
그러면 춤다 같은 경우에는 명령이나
청유를 쓸 수 없을 거예요.

00:15:38.381 --> 00:15:40.836
왜? 형용사니까.

00:15:40.936 --> 00:15:43.742
형용사의 경우에는 명령이나 청유가
안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?

00:15:43.842 --> 00:15:49.271
그러니까 애는 춤지 마라와 같이
부정의 명령도 안 되는 거 아니냐.

00:15:49.371 --> 00:15:52.410
그런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?

00:15:52.510 --> 00:15:54.894
이렇게 써요, 안 써요?
춤지 마라, 춤지 말아라.

00:15:54.994 --> 00:15:56.157
쓰죠.

00:15:56.257 --> 00:15:57.584
단 뜻이 달라지죠.

00:15:57.684 --> 00:15:59.146
이거는 명령이 아니었던 거야.

00:15:59.246 --> 00:16:02.186
바로 소망과 기원의 의미를
줄 때 쓴 거죠.

00:16:02.286 --> 00:16:06.244
봅시다.

00:16:06.344 --> 00:16:11.033
이 말다, 라는 단어가
사전에는 말다를 찾아야 돼요.

00:16:11.133 --> 00:16:14.481
말다, 라는 단어가
있는데 이게 ~말다.

00:16:14.581 --> 00:16:16.406
이렇게 해서는 잘 안
쓰지 않습니까?

00:16:16.506 --> 00:16:18.737
즉 평서문 자체로는 잘 안 써요.

00:16:18.837 --> 00:16:22.119
그런데 평서형
종결형으로는 안 쓰지만

00:16:22.219 --> 00:16:25.057
사실 제가 명령이나 청유문이
일반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

00:16:25.157 --> 00:16:26.657
아닌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?

00:16:26.757 --> 00:16:29.716
내가 말을 말아야지,
이렇게 쓰잖아요.

00:16:29.816 --> 00:16:31.413
들어본 적 있습니까?

00:16:31.513 --> 00:16:35.721
그러면 그때 말 뒤에 아야지, 라는
평서형 종결 어미를 쓴 상태입니다.

00:16:35.821 --> 00:16:38.189
그래서 일부는 또 가능하기도 해요.

00:16:38.289 --> 00:16:44.177
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동사의
명령이나 청유를 쓸 때

00:16:44.277 --> 00:16:45.708
주로 일반적으로 쓴다고 했어요.

00:16:45.808 --> 00:16:47.680
그러면 보세요, 애는
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.

00:16:47.780 --> 00:16:53.888
가지 말 뒤에, 어간 뒤에 명령형 종결
어미로는 뭐를 써야 되는 거예요?

00:16:53.988 --> 00:16:58.327
아라를 쓰거나

00:16:58.427 --> 00:17:04.141
그다음에 아를 쓸 수 있겠죠.

00:17:04.241 --> 00:17:07.573
그 뒤에는 보조사 요도
더해질 수 있습니다.

00:17:07.673 --> 00:17:09.876
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
거를 적용해본다면

00:17:09.976 --> 00:17:13.212
여기에 있는 아라의 경우에는
무슨 체에 해당하는 거죠?

00:17:13.312 --> 00:17:16.660
해라체에 해당하는 명령형
어미가 되는 거고요.

00:17:16.760 --> 00:17:21.592
그다음에 애는 아, 해체
또는 요까지 붙으면

00:17:21.692 --> 00:17:24.284
해요체에 해당하는 명령형
어미가 되는 겁니다.

00:17:24.384 --> 00:17:25.385
맞습니까?

00:17:25.485 --> 00:17:27.635
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
돼야 되는 거죠?

00:17:33.557 --> 00:17:35.447
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죠.

00:17:35.547 --> 00:17:41.136
그래서 이게 기본형입니다.

00:17:41.236 --> 00:17:42.790
그런데 말이에요.

00:17:42.890 --> 00:17:47.908
이 말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
계열, 어미와 연결되었을 때

00:17:48.008 --> 00:17:51.745
르을 빼줄 수 있다는 그런
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.

00:17:51.845 --> 00:17:56.173
그래서 허용 범위가 생기는데

00:17:56.273 --> 00:17:59.424
르이 탈락한다고 생각하면
어떤 일이 생길까요?

00:17:59.524 --> 00:18:01.795
르이 빠졌다고 봅시다.

00:18:01.895 --> 00:18:03.748
그러면 르이 빠지게 되면 마아라.

00:18:03.848 --> 00:18:05.972
ㅏ, ㅑ가 중복이 되잖아요.

00:18:06.072 --> 00:18:08.233
그러면 하나가 동음 탈락
현상이 되는 거죠.

00:18:08.333 --> 00:18:09.807
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?

00:18:09.907 --> 00:18:12.197
~하지 마라, 이렇게 되는
거예요, 르이 빠져서.

00:18:12.297 --> 00:18:13.515
역시 마찬가지로 르이 빠지게 되면

00:18:13.615 --> 00:18:15.109
~하지 마아요.

00:18:15.209 --> 00:18:18.840
그러면 ~하지 마, 하고
동음 탈락 돼서 벌어지고

00:18:18.940 --> 00:18:21.862
여기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.

00:18:21.962 --> 00:18:25.090
이거는 이 말다에만
특수하게 허용해주는 거지

00:18:25.190 --> 00:18:27.687
르 받침 쓰는 거 전부
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.

00:18:27.787 --> 00:18:30.020
예를 들면 살아라, 이렇게 했을 때

00:18:30.120 --> 00:18:31.920
사라, 이렇게 쓸 수
있는 거 아니잖아요.

00:18:32.020 --> 00:18:34.236
애는 좀 특이한 단어인 거예요.

00:18:34.336 --> 00:18:39.561
이렇게 말다의 경우에는 이렇게
르 탈락도 허용하여서

00:18:39.661 --> 00:18:41.340
이 특수한 사례가 만들어진 겁니다.

00:18:41.440 --> 00:18:43.909
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
다 가능한지 아시겠죠?

00:18:44.009 --> 00:18:46.340
말아라 또는 마라 또는 말아.

00:18:46.440 --> 00:18:48.393
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
있다는 이야기예요.

00:18:48.493 --> 00:18:50.863
이렇게 쓰면 되게 어색한
느낌 들 텐데,

00:18:50.963 --> 00:18:56.232
말아지 말아, 이렇게 하니까
뭐야 동물 말이야?

00:18:56.332 --> 00:18:57.693
아니예요, 이렇게 쓸 수 있어요.

00:18:57.793 --> 00:19:00.954
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것을 더
많이 써서 그런 것 뿐이죠.

00:19:01.054 --> 00:19:06.586
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
또는 가지 마, 가지 말아.

00:19:06.686 --> 00:19:09.303
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문제가

없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19:09.403 --> 00:19:12.251
다시, 애네는 명령형이고 밑에 있는

00:19:12.351 --> 00:19:15.123
이 형용사를 마라,
말아라로 이렇게 쓰게 되면

00:19:15.223 --> 00:19:16.729
그때는 명령의 개념이 아니라

00:19:16.829 --> 00:19:18.673
제발 내일 춥지 마라,
내일 비오지 마라.

00:19:18.773 --> 00:19:21.515
이런 식으로 해서 소망이나
기원을 드러내는 말투로

00:19:21.615 --> 00:19:23.812
쓰일 수는 있다는
겁니다, 형태상으로는.

00:19:23.912 --> 00:19:27.404
당연히 부정문은 아니죠,
이러면 부정문은 안 돼요.

00:19:27.504 --> 00:19:32.279
이렇게 해서 다양한
부정 표현 확인해봤고요.

00:19:32.379 --> 00:19:37.727
이번에는 시간 표현으로
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9:37.827 --> 00:19:41.892
부정 표현은 지금까지 문제로 내기가
까다로운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.

00:19:41.992 --> 00:19:44.230
그냥 뭐든지 일반화하기가 어려웠고

00:19:44.330 --> 00:19:47.067
동사, 형용사, 합성어, 파생어.

00:19:47.167 --> 00:19:49.705
되는 놈 있고 안 되는 놈
있고 좀 까다롭기 때문에

00:19:49.805 --> 00:19:53.209
보기를 주고 그때 그때 짜맞춰야
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

00:19:53.309 --> 00:19:55.770
이렇게 시간 표현의 경우 역시도

00:19:55.870 --> 00:19:58.518
크게 여러분이 법칙을 외울
필요는 없다고 봐요.

00:19:58.618 --> 00:20:03.094

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선어말 어미가
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

00:20:03.194 --> 00:20:05.036

두 가지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.

00:20:05.136 --> 00:20:12.652

시제를 나타내주는 데 첫 번째는,
시간성을 나타내주는 어휘들.

00:20:17.892 --> 00:20:22.765

주로 명사나 또는 부사의
측면이 많아요.

00:20:22.865 --> 00:20:24.172

예를 들어 볼까요?

00:20:24.272 --> 00:20:37.262

지금, 방금, 아까,
오늘, 내일, 이제 등등

00:20:37.362 --> 00:20:40.140

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
나타날 수밖에 없어요.

00:20:40.240 --> 00:20:42.862

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
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

00:20:42.962 --> 00:20:46.918

그다음에 두 번째는
선어말 어미인데,

00:20:47.018 --> 00:20:51.763

우리가 높임을 나타내기 위한
선어말 어미 시, 으시.

00:20:51.863 --> 00:20:55.063

그리고 약간 공손의 느낌을
나타내고 있는 읍, 사읍.

00:20:55.163 --> 00:20:57.191

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
옛스러운 느낌이고.

00:20:57.291 --> 00:21:00.522

우리가 다뤄봐야 되는 게 시간
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였잖아요.

00:21:00.622 --> 00:21:05.267

대표적으로 었, 았,
겠, 는 이런 것들인데.

00:21:05.367 --> 00:21:09.021

이 선어말 어미를 오늘
다루기는 하겠지만

00:21:09.121 --> 00:21:12.224

여기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크게
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.

00:21:12.324 --> 00:21:16.101

왜? 애가 힘이 더
세서 이쪽이 나와버리면

00:21:16.201 --> 00:21:17.571

애가 확 죽어버려요.

00:21:17.671 --> 00:21:19.213

그런 예문들을 보도록 하죠.

00:21:19.313 --> 00:21:24.686

먼저 2명의 남자 친구랑 여자
친구랑 대화를 할 텐데,

00:21:24.786 --> 00:21:26.636

전화통화를 했어요.

00:21:26.736 --> 00:21:28.702

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
이야기를 합니다.

00:21:28.802 --> 00:21:30.303

나 쇼핑했어.

00:21:30.403 --> 00:21:33.749

지금 이 말을 한 시간은 현재죠.

00:21:33.849 --> 00:21:35.354

지금 전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

00:21:35.454 --> 00:21:37.671

나 쇼핑했어, 이렇게 말을 합니다.

00:21:37.771 --> 00:21:40.087

발화시가 뭐라고요?
말이 나오는 시간.

00:21:40.187 --> 00:21:43.123

이 말이 이루어지는
시간이에요, 그게 발화시.

00:21:43.223 --> 00:21:45.638

이 말이 이루어진 시간, 현재.

00:21:45.738 --> 00:21:50.077

그런데 쇼핑을 하다, 이
사건은 언제 벌어졌느냐.

00:21:50.177 --> 00:21:51.555

이날 벌어진 거죠.

00:21:51.655 --> 00:21:53.505

지금 하는 이전에 벌어진 거죠.

00:21:53.605 --> 00:21:56.594

그러면 이것을 사건시라고
표현할 거거든요.

00:21:56.694 --> 00:22:00.313

즉 쇼핑하는 이 사건시가,

부등호 방향 기억하세요.

00:22:00.413 --> 00:22:04.440

앞선다는 쪽을 큰쪽으로,
이기는 쪽으로 잡아줍니다.

00:22:04.540 --> 00:22:06.551

그래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
앞서는 상황.

00:22:06.651 --> 00:22:10.742

이거는 전부 다 과거시제로
판단하겠다는 이야기예요.

00:22:10.842 --> 00:22:14.037

물론 이 문장에서 우리는
과거시제를 나타내기 위한

00:22:14.137 --> 00:22:15.550

요소를 발견해야 됩니다.

00:22:15.650 --> 00:22:17.022

그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.

00:22:17.122 --> 00:22:18.543

우선 기본 틀은 이래요.

00:22:18.643 --> 00:22:21.668

그러면 요소를 좀 골라보도록 하죠.

00:22:21.768 --> 00:22:23.674

바로 왔이에요.

00:22:23.774 --> 00:22:25.587

지금 대표 예문만 갖다 왔지만

00:22:25.687 --> 00:22:27.545

저 왔이 된다는 이야기는
뭐든 가능하다는 이야기죠?

00:22:27.645 --> 00:22:31.744

였도 있고 그리고 하다 계열 뒤에는
특수하게 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.

00:22:31.844 --> 00:22:34.304

그래서 왔, 였, 였
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.

00:22:34.404 --> 00:22:38.240

이 과거시제들은 기본적으로
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는 거를

00:22:38.340 --> 00:22:40.055

알려주는 정보이기는 합니다.

00:22:40.155 --> 00:22:41.523

그래서 기본적인 문장이 이래요.

00:22:41.623 --> 00:22:44.432

예전에는 아이들이 구슬을
많이 가지고 놀았다.

00:22:44.532 --> 00:22:47.628

이렇게 이야기했을 때,
이때 놀다에 뭐를 붙였다?

00:22:47.728 --> 00:22:49.536

았을 지금 붙였어요.

00:22:49.636 --> 00:22:52.807

그랬더니 이 사건, 구슬을
가지고 노는 사건이

00:22:52.907 --> 00:22:55.318

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
알려주고 있는 거죠.

00:22:55.418 --> 00:22:58.126

이 문장을 말하는 시간은 항상
현재를 기준으로 갑니다.

00:22:58.226 --> 00:22:59.747

발화시는 항상 현재거든요.

00:22:59.847 --> 00:23:04.168

그런데 예전에는, 이 시간 정보가
사실 굉장히 힘이 강해서

00:23:04.268 --> 00:23:07.014

이거 없이도 벌써 과거의
느낌이 확 나버렸어요.

00:23:07.114 --> 00:23:08.567

다음 가보겠습니다.

00:23:08.667 --> 00:23:11.761

여자는 지금 감았던 눈을 떴다.

00:23:11.861 --> 00:23:13.116

과거 맞아요?

00:23:13.216 --> 00:23:14.971

일단 떴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.

00:23:15.071 --> 00:23:19.780

먼저 이거 예문 풀이 봐야죠.

00:23:19.880 --> 00:23:23.307

애는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
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

00:23:23.407 --> 00:23:25.099

아주 기본적인 의미라면.

00:23:25.199 --> 00:23:26.869

애는 떴다 한번 보겠습니다.

00:23:26.969 --> 00:23:29.700

뜨 더하기 과거 선어말
어미 었 들어갔죠.

00:23:29.800 --> 00:23:33.309

그다음에 다 해서 一탈락으로
해서 뗐다가 만들어진 건데,

00:23:33.409 --> 00:23:35.715
이 었은 어떻게 해결을
봐야 되느냐.

00:23:35.815 --> 00:23:37.698
여러분, 이거 지금 과거 맞아요?

00:23:37.798 --> 00:23:40.518
지금 감았던 눈을 뗐다.
과거입니까?

00:23:40.618 --> 00:23:43.001
말하고 있는 시점에 딱
뗐 거 아니에요?

00:23:43.101 --> 00:23:45.527
지금이라는 어휘가 나왔잖아요.

00:23:45.627 --> 00:23:47.001
그러니까 이 어휘 때문에,

00:23:47.101 --> 00:23:49.738
만약에 여자는 감았던 눈을 뗐다.

00:23:49.838 --> 00:23:52.345
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?
과거 맞아요.

00:23:52.445 --> 00:23:55.101
감았던 눈을 뗐다 그러면
이렇게 문장을 썼으면,

00:23:55.201 --> 00:24:00.115
뗐 행위는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 이전에
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

00:24:00.215 --> 00:24:02.894
지금이라는 말을 써버렸단 말이에요.
그 이야기는 뭐냐?

00:24:02.994 --> 00:24:05.827
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
때 행위가 완료되어

00:24:05.927 --> 00:24:08.689
현재에도 미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.

00:24:08.789 --> 00:24:11.887
즉 형태로는 과거 시제를 썼지만

00:24:11.987 --> 00:24:17.988
뗐다라고 말하는 그 바로 직전에
그 사건이 완료가 돼서

00:24:18.088 --> 00:24:24.786
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대에도
이어지고 있다는 거죠.

00:24:24.886 --> 00:24:28.268
애를 가지고 과거 시제라고는 하지만

00:24:28.368 --> 00:24:31.948
정확하게 과거의 느낌을
주는지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.

00:24:32.048 --> 00:24:35.562
그래서 출제자가 정확한
과거 시제를 줄 때는

00:24:35.662 --> 00:24:37.128
위에 거를 주지 아래
거를 안 줘요.

00:24:37.228 --> 00:24:39.142
더군다나 밑에 거는 끝났어.

00:24:39.242 --> 00:24:41.891
과거 시제가 아니라 시제가
아예 뭐가 됐냐?

00:24:41.991 --> 00:24:45.158
보세요, 수비가 저렇게
엉망이니 졌네, 졌어.

00:24:45.258 --> 00:24:47.209
뭐죠?

00:24:47.309 --> 00:24:51.190
지 더하기 였네죠.

00:24:51.290 --> 00:24:52.817
그래서 졌네가 나온 거 아닙니까?

00:24:52.917 --> 00:24:56.743
그러면 여기에 었이라는 과거 전어말
어미를 사용했으니까 과거입니까?

00:24:56.843 --> 00:24:58.510
지금 뭐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?

00:24:58.610 --> 00:25:00.782
지금 수비가 저렇게 엉망이니,

00:25:00.882 --> 00:25:03.201
이길 수도 있어요, 역전할
수도 있단 말이야.

00:25:03.301 --> 00:25:04.915
저쪽이 자책골 넣을 수도 있어요.

00:25:05.015 --> 00:25:07.470
그런데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

00:25:07.570 --> 00:25:11.842
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해주려는
느낌이 있다는 이야기에요.

00:25:11.942 --> 00:25:13.906
그래서 여기에 나와

있는 거는 뭐다?

00:25:14.006 --> 00:25:18.058
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
일을 사실인 양 서술한다.

00:25:18.158 --> 00:25:21.956
그래서 애가 사건시랑
발화시랑 비교해봤을 때

00:25:22.056 --> 00:25:24.752
오히려 발화시가 더 앞서는,

00:25:24.852 --> 00:25:28.330
즉 졌다는 사건은 미래에
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죠.

00:25:28.430 --> 00:25:29.448
그래서 잘 보세요.

00:25:29.548 --> 00:25:32.196
위에 있는 거는 아주
정상적인 과거 시제를 썼고

00:25:32.296 --> 00:25:36.234
발화시가 사건시보다
뒤에 있는 상황.

00:25:36.334 --> 00:25:38.245
사건이 먼저 일어난 상황을
딱 이야기해준다면

00:25:38.345 --> 00:25:39.950
애는 거의 동시적인,

00:25:40.050 --> 00:25:42.278
사건시와 발화시가
거의 동시적인 의미.

00:25:42.378 --> 00:25:44.248
과거시제라고 거의 이야기를 해요.

00:25:44.348 --> 00:25:45.769
왜냐하면 완료성이 있기 때문에

00:25:45.869 --> 00:25:49.099
그러나 거의 동시적인 느낌을 준다는
점에서 출제를 거의 못하고요.

00:25:49.199 --> 00:25:51.292
밑에 있는 거는 보면 졌네, 졌어.

00:25:51.392 --> 00:25:53.885
뭐라고요? 이거는 완전한
미래 시제로 잡아요.

00:25:53.985 --> 00:25:57.610
뭐라고요? 미래 시제로
잡는다니까요.

00:25:57.710 --> 00:26:02.424

왜? 우리가 과거냐, 현재냐,
미래를 따질 때는 뭐만 따진다?

00:26:02.524 --> 00:26:05.476
그 사건과 발화시의 관계만 따져요.

00:26:05.576 --> 00:26:10.534
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나왔을
때도 이런 거 있었어요.

00:26:10.634 --> 00:26:14.264
이 두 가지를 만약에
비교해본다면 이런 거예요.

00:26:14.364 --> 00:26:17.313
현재다, 그러면 이렇게 잡아요.

00:26:17.413 --> 00:26:21.523
이거냐, 아니면 이거냐.

00:26:21.623 --> 00:26:24.292
이 차이죠.

00:26:24.392 --> 00:26:28.779
아니면 이런 거냐.

00:26:28.879 --> 00:26:32.107
이렇게 잡았을 때 결국 현재의
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

00:26:32.207 --> 00:26:33.983
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냐.

00:26:34.083 --> 00:26:37.145
이거를 과거로 봐야 되냐, 현재로
봐야 되냐 되게 애매한 거예요.

00:26:37.245 --> 00:26:38.558
그래서 이거를 못 주는 거예요.

00:26:38.658 --> 00:26:39.816
그런데 이런 거냐
이런 거는 줍니다.

00:26:39.916 --> 00:26:41.358
잘 보세요, 이거는 시제 언제라고요?
과거.

00:26:41.458 --> 00:26:43.809
언제라고요? 미래입니다.

00:26:43.909 --> 00:26:45.948
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.

00:26:46.048 --> 00:26:47.445
다음.

00:26:53.545 --> 00:26:56.867
보았었다, 먹었었다, 하였었다.

00:26:56.967 --> 00:27:02.572

그래서 았었, 았었, 또는
았었 이런 것들이죠.

00:27:02.672 --> 00:27:04.079
역시 마찬가지로.

00:27:04.179 --> 00:27:06.983
선생님, 이것을 끊어서
형태소를 나누지 않습니까?

00:27:07.083 --> 00:27:08.646
네, 안 나누고 느낌이 좀 달라요.

00:27:08.746 --> 00:27:12.956
그래서 그냥 았이나 았과
달리 았었이나 았었이

00:27:13.056 --> 00:27:14.559
또 다른 뉘앙스를 주는데.

00:27:14.659 --> 00:27:17.269
우선 애네는 과거를 나타내는
요소이기는 합니다.

00:27:17.369 --> 00:27:19.358
그래서 예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.

00:27:19.458 --> 00:27:22.626
젊었을 때에는 배우 하라는
소리 많이 들었었다.

00:27:22.726 --> 00:27:26.635
이럴 때 들었다 써도 되지만
들었었다, 이렇게 썼으면

00:27:26.735 --> 00:27:27.956
뉘앙스는 이겁니다.

00:27:28.056 --> 00:27:30.036
현재와 비교하여 다르다는 뉘앙스.

00:27:30.136 --> 00:27:33.546
그래서 지금은 누가 나보고 배우하라는
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.

00:27:33.646 --> 00:27:35.793
잘생겼다는 이야기는
전혀 하지 않아.

00:27:35.893 --> 00:27:39.236
지금은 개그맨 하라는 이야기는
많이 할지는 모르지만.

00:27:39.336 --> 00:27:41.988
지금은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
말이어야 돼요, 이 뉘앙스가.

00:27:42.088 --> 00:27:45.123
작년 이맘때 가뭄이 매우 심했었다.

00:27:45.223 --> 00:27:48.031

지금은 아니라고
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

00:27:48.131 --> 00:27:52.512
어쨌면 지금이 가뭄이 아니고
되게 비가 잘 왔다일 수도 있고

00:27:52.612 --> 00:27:55.298
가뭄이 들기는 들었는데 아주
심하지 않았다일 수도 있어요.

00:27:55.398 --> 00:27:58.559
그래서 애는 비교성이
없는 거는 아니에요.

00:27:58.659 --> 00:28:00.514
사실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

00:28:00.614 --> 00:28:03.418
애는 단절적인 느낌이 좀 더
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.

00:28:03.518 --> 00:28:05.568
그래서 애나 애나 똑같아요.

00:28:05.668 --> 00:28:09.483
어쨌든 기본적인 사건시가 발화시보다
앞서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.

00:28:09.583 --> 00:28:14.614
그래서 앓았이나 또는
엎엎이나 엎엎을 썼을 때에는

00:28:14.714 --> 00:28:17.915
일반적으로 과거시제라고
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죠.

00:28:18.015 --> 00:28:21.514
이번에는 더 계열을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8:21.614 --> 00:28:24.992
더 계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

00:28:25.092 --> 00:28:28.643
이 더 뒤에 ~했던 하면서
ㄴ이 덧붙을 수도 있고요.

00:28:28.743 --> 00:28:30.842
어쨌든 더가 연결되어 있는 놈.

00:28:30.942 --> 00:28:34.306
어제는 기운이 없더니 오늘은
기운이 넘치는구나.

00:28:34.406 --> 00:28:36.787
직접 경험한 것을 회상함.

00:28:36.887 --> 00:28:38.508
어제는 기운이 없더니,
라고 하는 거는

00:28:38.608 --> 00:28:40.913

너가 기운이 없는 거를
내가 확인을 했던 거죠.

00:28:41.013 --> 00:28:44.272

그래서 눈으로 본 것을 자기가
직접 회술하는 방식이에요.

00:28:44.372 --> 00:28:49.140

밑에, 수박하고 바나나를 같이
같이 먹었는데 맛있더라.

00:28:49.240 --> 00:28:54.077

자기가 경험한 거를 회상하는 거
말고도 어떤 뉘앙스가 있다?

00:28:54.177 --> 00:28:55.143

전달성이 좀 있어요.

00:28:55.243 --> 00:28:59.166

이거를 내가 뭐하더라, 이렇게
이야기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.

00:28:59.266 --> 00:29:01.718

그러나 일단 이 더가 들어갔을 때

00:29:01.818 --> 00:29:04.497

여전히 과거 시제임은
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

00:29:04.597 --> 00:29:06.812

왜냐하면 이미 벌어진
일에 대한 경험, 회상,

00:29:06.912 --> 00:29:09.423

그거를 전달하려고
하는 것이기 때문에

00:29:09.523 --> 00:29:14.503

이것을 봤던 시간, 이것을 경험했던
시간 자체는 다 과거임은 분명합니다.

00:29:14.603 --> 00:29:21.375

그러니 지금 정리해보면 았이나
또는 았였이나 또는 더의 계열에서

00:29:21.475 --> 00:29:24.375

았의 경우는 시제가 앞에
있는 부사에 의해서

00:29:24.475 --> 00:29:26.929

달라지는 경우가 분명 있었으니
주의를 해야 되겠고.

00:29:27.029 --> 00:29:31.668

또 았였이나 더 계열 같은 경우는 그냥
과거라고 판단해도 문제가 없겠죠.

00:29:31.768 --> 00:29:36.532

현재시제를 한번 잡아볼까요?

00:29:36.632 --> 00:29:39.139

그러면 이거는 뻔하죠.

00:29:39.239 --> 00:29:42.548

나 쇼핑해, 이렇게
하면 되는 거죠.

00:29:42.648 --> 00:29:46.287

이러면 말하고 있는
발화시는 현재이고

00:29:46.387 --> 00:29:48.808

그리고 이 말하고 있는 발화사에서

00:29:48.908 --> 00:29:51.641

사건시가 같이 벌어지고
있다고 보면 되겠죠.

00:29:51.741 --> 00:29:54.918

그러니 사건시와
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을

00:29:55.018 --> 00:29:56.944

우리는 현재시제라고
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.

00:29:57.044 --> 00:30:01.220

현재시제를 이루어내는
선어말 어미는 뭐냐.

00:30:01.320 --> 00:30:04.159

는이 대표적인 기능을
하고 있습니다.

00:30:04.259 --> 00:30:05.120

하나죠.

00:30:05.220 --> 00:30:08.683

이 는이라는 게 붙어 있을 때는
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하는

00:30:08.783 --> 00:30:10.759

현재시제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,

00:30:10.859 --> 00:30:12.895

그래서 예문 두 가지를 보세요.

00:30:12.995 --> 00:30:15.202

어린 아이가 어려운 책을
읽는구나, 라고 할 때

00:30:15.302 --> 00:30:19.153

구나, 만약에 형용사라고
한다면 는구나 못 붙어요.

00:30:19.253 --> 00:30:20.664

그냥 구나가 붙어요.

00:30:20.764 --> 00:30:22.725

그래서 하늘이 참 높구나,

이렇게 쓰게 되죠.

00:30:22.825 --> 00:30:25.154

그런데 동사이기 때문에
는구나, 이게 붙습니다.

00:30:25.254 --> 00:30:29.902

이때의 눈이 현재를 보여주고
있다는 느낌을 주죠.

00:30:30.002 --> 00:30:32.302

그래서 어린 아이가
어려운 책을 읽는구나.

00:30:32.402 --> 00:30:33.886

이거는 내가 보면서 말하는 거죠.

00:30:33.986 --> 00:30:35.606

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.

00:30:35.706 --> 00:30:37.370

언니가 여기서 일하는군요.

00:30:37.470 --> 00:30:39.828

이거는 내가 말을 할 때 일도
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.

00:30:39.928 --> 00:30:42.954

그래서 지금 동시에 여기에
눈이 들어왔을 때

00:30:43.054 --> 00:30:44.782

현재시제를 나타내주는 게 맞죠.

00:30:44.882 --> 00:30:47.426

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
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.

00:30:47.526 --> 00:30:50.140

이제 밑에 있는 예문 보세요.

00:30:50.240 --> 00:30:53.019

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.

00:30:53.119 --> 00:30:56.120

니다, 눈이나 눈이나
같은 계열이기 때문에

00:30:56.220 --> 00:30:57.823

니다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,

00:30:57.923 --> 00:31:00.345

애가 지금 현재시제라
할 수 있을까요?

00:31:00.445 --> 00:31:01.787

현재 돌고 있기는 해요.

00:31:01.887 --> 00:31:05.259

그런데 과거에도 돌았고
앞으로도 돌 겠죠?

00:31:05.359 --> 00:31:07.768
일반적 사실에 해당하죠.

00:31:07.868 --> 00:31:11.454
다음,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
봉사활동을 한다.

00:31:11.554 --> 00:31:12.908
현재입니까?

00:31:13.008 --> 00:31:14.515
매주 토요일이 지금인가요?

00:31:14.615 --> 00:31:15.594
그게 아니라는 거죠.

00:31:15.694 --> 00:31:18.288
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라는
거는 과거도 했었고

00:31:18.388 --> 00:31:20.493
이번주도 그리고 다음에도.

00:31:20.593 --> 00:31:22.090
이거는 현재야, 과거야, 미래야?

00:31:22.190 --> 00:31:25.348
이렇게 나오면 애네들은 시제성을
갖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.

00:31:25.448 --> 00:31:30.365
그래서 특정 시제를 갖지
않는다고 잡아줘야 될 문장들입니다.

00:31:30.465 --> 00:31:31.935
다음.

00:31:32.035 --> 00:31:34.079
이번에 미래시제 적용해보도록 하죠.

00:31:34.179 --> 00:31:36.499
역시나 통화를 하면서
이렇게 이야기한다면

00:31:36.599 --> 00:31:39.356
나 쇼핑하겠어, 이렇게 이야기한다면

00:31:39.456 --> 00:31:40.915
아직은 안 한 거예요.

00:31:41.015 --> 00:31:43.682
그러니까 말하는 시간,
발화시는 여전히 현재인데

00:31:43.782 --> 00:31:48.149
이 현재의 시간에서 사건시를
나중으로 설정해왔다는 이야기이고.

00:31:48.249 --> 00:31:53.731
이럴 때는 사건시보다

발화시가 앞선 상황이죠.

00:31:53.831 --> 00:31:56.755
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사건이
뒤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.

00:31:56.855 --> 00:31:59.531
그러면 이렇게 미래 시제를
만들어주는 선어말 어미로는

00:31:59.631 --> 00:32:02.697
바로 리나 르제열들.

00:32:02.797 --> 00:32:04.819
이렇게 르제열이라고
이야기하는 거는

00:32:04.919 --> 00:32:06.403
르제열 뒤에 뭐가 더 붙어요.

00:32:06.503 --> 00:32:09.398
~할게, ~할걸, 이런
식으로 뭐가 덧붙게 됩니다.

00:32:09.498 --> 00:32:10.625
한번 가볼게요.

00:32:10.725 --> 00:32:14.374
그는 뭐든지 열심히
하니까 꼭 성공하리라.

00:32:14.474 --> 00:32:18.316
성공한 사건은 아직 안 벌어졌고 앞으로
그럴 거라 추측을 하는 상황이죠.

00:32:18.416 --> 00:32:21.735
또 축구 경기 내일 새벽에 할걸.

00:32:21.835 --> 00:32:26.819
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게
하나 있기는 해요.

00:32:26.919 --> 00:32:29.780
축구 경기는 내일 새벽에
할걸,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

00:32:29.880 --> 00:32:35.225
그러면 축구 경기는 미래에
이루어질 상황인 거죠.

00:32:35.325 --> 00:32:38.387
그래서 애네들은 르이나
여기에 있는 리가

00:32:38.487 --> 00:32:40.187
미래 시제임을 나타내는 거죠.

00:32:40.287 --> 00:32:42.963
그래서 상황에 대한 추측을
보여주고 있습니다.

00:32:43.063 --> 00:32:45.152
그런데 만약에 이 말투가 뉘앙스를

00:32:45.252 --> 00:32:47.193
축구 경기는 내일 새벽에 할걸...

00:32:47.293 --> 00:32:48.862
이러면 후회가 돼버리는 거예요.

00:32:48.962 --> 00:32:52.094
이럴 때는 또 시제성을 미래로
잡기 어려워지는 거죠.

00:32:52.194 --> 00:32:55.627
다시요, 축구 경기는
내일 새벽에 할걸?

00:32:55.727 --> 00:32:57.963
이거하고 지금 시간을
확인해 본 뒤에

00:32:58.063 --> 00:33:00.294
그 정보를 알려주는
거라면 미래 시제지만

00:33:00.394 --> 00:33:04.007
아 축구 경기는 내일
새벽에 할걸...

00:33:04.107 --> 00:33:06.109
이러면 그거는 후회를
나타내는 거기 때문에

00:33:06.209 --> 00:33:08.407
시제성을 나타내는 것이
아니라는 거죠.

00:33:08.507 --> 00:33:10.633
밑에 있는 2개도 보도록 할게요.

00:33:10.733 --> 00:33:12.988
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리라.

00:33:13.088 --> 00:33:15.253
이런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.

00:33:15.353 --> 00:33:18.638
그다음에 집에 들어가서
전화할게요, 르게죠.

00:33:18.738 --> 00:33:20.605
그다음에 요까지 덧붙였습니다.

00:33:20.705 --> 00:33:23.509
전화할게, 라는 거는
의지 표명이 되겠죠.

00:33:23.609 --> 00:33:27.658
그래서 주체의 의향이나
의지의 표현인데.

00:33:27.758 --> 00:33:29.404

이런 것들 역시 어떻게 됩니까?

00:33:29.504 --> 00:33:31.179

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.

00:33:31.279 --> 00:33:32.781

따르리라,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.

00:33:32.881 --> 00:33:35.176

전화할게요, 앞으로
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.

00:33:35.276 --> 00:33:38.188

그래서 시제성으로 나타냈을
때는 리나 또는 르제열,

00:33:38.288 --> 00:33:41.530

미래성을 나타내주는 게 많죠.

00:33:41.630 --> 00:33:45.608

겟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세 번째
문장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죠.

00:33:45.708 --> 00:33:49.069

겟, 기본적으로는 미래 느낌을
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.

00:33:49.169 --> 00:33:52.073

이 고추 잘못 먹으면
사레 걸리겠다.

00:33:52.173 --> 00:33:56.602

일단 리가 들어와 있는 것도,
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.

00:33:56.702 --> 00:34:00.673

이거는 걸리다 원형이지 리가 앞에서
들어온 선어말 어미가 아니잖아요.

00:34:00.773 --> 00:34:02.080

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?

00:34:02.180 --> 00:34:08.151

그래서 걸리다, 라고 하면 이미
걸리까지가 어간으로 잡아줘야 됐고.

00:34:08.251 --> 00:34:10.524

선어말 어미는 겟만 들어와
있는 상황이에요.

00:34:10.624 --> 00:34:15.001

그러면 걸리겠다, 라고
하면 앞으로에 대한 추측,

00:34:15.101 --> 00:34:17.969

미래의 일이나 추측이니까
미래시제가 될 수 있어요.

00:34:18.069 --> 00:34:20.697

오늘 중에는 반드시 일을 끝내겠다.

00:34:20.797 --> 00:34:23.348
이러면 아직은 끝내지 않은 상태이고

00:34:23.448 --> 00:34:25.030
자신의 의지를 표명했지만

00:34:25.130 --> 00:34:28.680
그 의지 역시도 미래성을 나타내주고
있는 의지가 되는 거죠.

00:34:28.780 --> 00:34:31.820
그래서 애네들은 전부 다 미래시제로
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.

00:34:31.920 --> 00:34:33.736
그런데 이 문장은 어떨까요?

00:34:33.836 --> 00:34:36.386
이 문제는 중학생도 풀겠다.

00:34:36.486 --> 00:34:38.809
그러면 앞으로 애 뭐 풀릴 건가요?

00:34:38.909 --> 00:34:40.858
중학생이 풀게 하겠다는 겁니까?

00:34:40.958 --> 00:34:44.902
그게 아니라 가능성이나 능력에
대한 서술로 봐야 되므로

00:34:45.002 --> 00:34:49.393
이럴 때는 특정 시제를 갖고 있는
거는 아니라고 봐줘야 될 문장이고.

00:34:49.493 --> 00:34:51.296
또 다음 문장도 볼까요?

00:34:51.396 --> 00:34:54.538
제가 좀 이상하니까,

00:34:54.638 --> 00:34:57.016
내가 한번 살펴봐도 되겠니?

00:34:57.116 --> 00:35:01.758
여기서 되겠니는 선생님,
미래성 있잖아요.

00:35:01.858 --> 00:35:02.977
네, 그럴 수 있어요.

00:35:03.077 --> 00:35:07.144
그런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완곡하게
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.

00:35:07.244 --> 00:35:10.855
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의
의향을 물어보는 측면이지

00:35:10.955 --> 00:35:15.212
된다, 안 된다는 시제성은 많이

사라진 상태라고 보는 거죠.

00:35:15.312 --> 00:35:16.764

이것도 문제로 잘 못 내요.

00:35:16.864 --> 00:35:18.333

특히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.

00:35:18.433 --> 00:35:20.910

별사람을 다 보겠다.

00:35:21.010 --> 00:35:24.307

이거는 해야리거나 따져
보면 그렇게 되다,

00:35:24.407 --> 00:35:25.826

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.

00:35:25.926 --> 00:35:28.238

그리고 이것도 앞으로
볼 거는 아니거든요.

00:35:28.338 --> 00:35:30.731

그래서 미래 시제의 느낌이
별로 없다는 거죠.

00:35:30.831 --> 00:35:34.608

그래서 이런 것도 특정 시제를 잡아보기는
어려운 문장의 형태가 됩니다.

00:35:34.708 --> 00:35:36.908

그래서 이 겠은 시제정보다는

00:35:37.008 --> 00:35:40.782

서법적인 느낌을 더 많이 가지고
있다는 해석도 많아요.

00:35:40.882 --> 00:35:43.559

그러니 지금 이렇게 두 번째,

00:35:43.659 --> 00:35:47.958

선어말 어미의 대표적인 과거,
미래, 현재를 나타내주는 거를

00:35:48.058 --> 00:35:50.368

보기는 봤는데 큰 힘이 있습니까?

00:35:50.468 --> 00:35:51.706

별로 없었던 거죠.

00:35:51.806 --> 00:35:54.820

주로 이쪽에 힘이 더 강함을
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.

00:35:54.920 --> 00:35:57.836

따라서 시제는 문법 표지보다,

00:35:57.936 --> 00:36:00.589

이 문법 표지라는 거는 선어말
어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36:00.689 --> 00:36:02.757

그 상황을 따져 보시고

00:36:02.857 --> 00:36:05.886

그 행위가 내가 말하고 있는
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

00:36:05.986 --> 00:36:08.766

언제 벌어졌는지를 따져
보자는 이야기예요.

00:36:08.866 --> 00:36:13.709

그런데 시제 문제에서
다소 어렵게 나온다면

00:36:13.809 --> 00:36:19.388

바로 이런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
쪽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.

00:36:25.745 --> 00:36:30.109

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를 두 가지로
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

00:36:30.209 --> 00:36:33.134

만약에 문장이 홀문장이라면

00:36:33.234 --> 00:36:36.128

그거는 절대 시제 하나만 가지고
있다고 보면 되겠어요.

00:36:36.228 --> 00:36:44.567

그런데 상대 시제의 경우에는
접문장에서 이루어집니다.

00:36:44.667 --> 00:36:48.848

사실 문법서에 따라서는 이어진
문장의 경우도 제시를 하는데

00:36:48.948 --> 00:36:52.597

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딱
보는 예는 안은 문장,

00:36:52.697 --> 00:36:58.804

그것도 관형절 안은 문장으로
국한해서 설명을 해요.

00:37:03.822 --> 00:37:08.978

그래서 이 관형절 안은 문장일 때만
상대 시제가 잡혀 있는 건데,

00:37:09.078 --> 00:37:10.867

이거를 외우면 돼요.

00:37:10.967 --> 00:37:13.050

기준 시간이 언제냐.

00:37:13.150 --> 00:37:16.966

절대 시제는 바로 발화시입니다.

00:37:17.066 --> 00:37:19.422

아까 전에 과거나 현재나

미래를 따지기 위해

00:37:19.522 --> 00:37:22.851
기본적인 말을 하고 있는 시간.

00:37:22.951 --> 00:37:25.425
항상 현재로 잡아야죠,
발화시는 항상 현재입니다.

00:37:25.525 --> 00:37:29.223
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
언제 벌어졌는지를 따지는 게

00:37:29.323 --> 00:37:30.864
바로 절대 시제라는 거죠.

00:37:30.964 --> 00:37:35.134
그런데 상대 시제는 어떻게 되냐면,

00:37:37.593 --> 00:37:42.569
주문장의 사건시를 기준으로
상대 시제를 따져요.

00:37:42.669 --> 00:37:46.466
무슨 소리인지 한번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37:46.566 --> 00:37:50.560
제시된 세 문장은 전부 다
관형절을 안은 문장의 구성이에요.

00:37:50.660 --> 00:37:54.491
바깥에 도와드렸다, 라는
서술어가 있습니다.

00:37:54.591 --> 00:37:59.450
주어는 뭐죠?
나는, 이거죠.

00:37:59.550 --> 00:38:02.049
또다른 서술어였던 높이가 있었어요.

00:38:02.149 --> 00:38:03.788
청소하시다, 이겁니다.

00:38:03.888 --> 00:38:05.741
누가 청소하시는 거였죠? 어머니는.

00:38:05.841 --> 00:38:08.953
그런데 애가 관계 관형절이기
때문에 생략을 하죠.

00:38:09.053 --> 00:38:11.182
뒤에 수식받고 있는
부분이 있으니까.

00:38:11.282 --> 00:38:14.588
그래서 어머니는, 이 주어
가 있을 법한 부분이었습니다.

00:38:14.688 --> 00:38:17.097

그래서 이렇게 안긴
문장이 형성이 됐어요.

00:38:17.197 --> 00:38:24.290
그러면 이중에서 행위를 나타낸
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.

00:38:24.390 --> 00:38:26.085
이렇게 됩니다.

00:38:26.185 --> 00:38:31.663
두 가지에서 바깥에 있는
애랑, 안긴 문장의 이놈이랑

00:38:31.763 --> 00:38:33.913
주문장이 어느 쪽이라고 보겠습니까?

00:38:34.013 --> 00:38:35.626
당연히 바깥 문장입니다.

00:38:35.726 --> 00:38:39.947
그래서 바깥 문장이 주문장이고 안긴
문장이 부문장으로 볼 수 있어요.

00:38:40.047 --> 00:38:46.123
그래서 애는 절대 시제만
가질 수밖에 없어요.

00:38:46.223 --> 00:38:51.631
그런데 애는 절대 시제와 주문장의
사건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

00:38:51.731 --> 00:38:54.732
상대 시제까지 함께 갖게
된다는 이야기에요.

00:38:54.832 --> 00:38:56.640
안에 있는 문장의 경우에는.

00:38:56.740 --> 00:39:01.444
그래서 이놈과 이놈의 절대
시제를 먼저 따져보겠습니다.

00:39:01.544 --> 00:39:02.513
볼게요.

00:39:02.613 --> 00:39:04.303
절대 시제는 뭐를 기준으로 먼저 간다?

00:39:04.403 --> 00:39:07.747
항상 말을 하고 있는 현재,
발화시를 기준으로 간다고 했습니다.

00:39:07.847 --> 00:39:12.816
도워드렸다는 절대
시제는 뭐가 될까요?

00:39:12.916 --> 00:39:15.064
과거일까요, 현재일까요,
미래일까요?

00:39:15.164 --> 00:39:19.552

이러면 애는 과거가 되죠.

00:39:19.652 --> 00:39:23.703

왜? 지금 이 문장을 말로
하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.

00:39:23.803 --> 00:39:25.906

나는 청소하시는
어머니를 도와드렸다.

00:39:26.006 --> 00:39:27.917

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,

00:39:28.017 --> 00:39:30.445

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
언제 도와드린 거예요?

00:39:30.545 --> 00:39:31.958

과거에 도와드린 거죠.

00:39:32.058 --> 00:39:33.786

그러니까 과거 시제라고
하는 거예요.

00:39:33.886 --> 00:39:35.152

다음 갑니다.

00:39:35.252 --> 00:39:39.654

청소하시는, 여기서 절대
시제는 언제일까요?

00:39:39.754 --> 00:39:42.020

과거죠.

00:39:42.120 --> 00:39:47.162

선생님, 왜요?
청소하시는, 지금 하는 거잖아요.

00:39:47.262 --> 00:39:49.073

잘 보세요.

00:39:49.173 --> 00:39:51.071

정말 지금 하고 있다고요, 청소를?

00:39:51.171 --> 00:39:54.567

나는 청소하시는
어머니를 도와드렸다,

00:39:54.667 --> 00:39:57.551

이 문장의 의미가 지금
청소하는 어머니를

00:39:57.651 --> 00:40:00.315

나는 과거에 도와드렸다는
문장이예요?

00:40:00.415 --> 00:40:02.914

아니지 않습니까? 이거
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?

00:40:03.014 --> 00:40:05.515
어머니가 과거에 청소하고 있는데

00:40:05.615 --> 00:40:07.896
내가 그때 도와드렸다는 이야기를
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

00:40:07.996 --> 00:40:11.734
즉 청소하시는데 청소하다의 행위가

00:40:11.834 --> 00:40:15.688
내가 말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
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.

00:40:15.788 --> 00:40:19.586
그런데 여러분이 현재라고
착각했으면 뭐 때문이에요?

00:40:19.686 --> 00:40:22.587
형태 보고, 문법 표지
보는 거 아니라고요.

00:40:22.687 --> 00:40:24.055
생각을 하셔야 돼요.

00:40:24.155 --> 00:40:25.895
여기에 있는 이 사건
언제 벌어진 거야?

00:40:25.995 --> 00:40:27.272
이거를 기준을 잡아야 돼요.

00:40:27.372 --> 00:40:29.469
이제 상대 시제를 따집니다.

00:40:29.569 --> 00:40:33.761
상대 시제는 주문장의 사건시를
기준으로 따진다고 했거든요.

00:40:33.861 --> 00:40:41.841
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날 때
기준으로 언제 벌어진다는 거예요.

00:40:41.941 --> 00:40:45.829
어머니가 청소하시고
나는 그때 도와드려요.

00:40:45.929 --> 00:40:47.294
같이 해요.

00:40:47.394 --> 00:40:51.542
즉 이 사건을 기준으로 이 사건은
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.

00:40:51.642 --> 00:40:53.827
그래서 상대 시제가 뭐가 된다?

00:40:53.927 --> 00:40:57.154
현재라고 잡히는 거죠.

00:40:57.254 --> 00:40:58.410

이해 되셨어요?

00:40:58.510 --> 00:41:00.068

이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.

00:41:00.168 --> 00:41:02.321

바깥 서술어가 빼앗겼는데요.

00:41:02.421 --> 00:41:07.185

누가 빼앗겼어요? 형이 빼앗겼어요.

00:41:07.285 --> 00:41:09.320

안긴 문장도 있네요.

00:41:09.420 --> 00:41:11.285

읽었어요, 누가 읽었죠?

00:41:11.385 --> 00:41:12.548

내가 읽었어요.

00:41:12.648 --> 00:41:14.644

애는 동격 관형절로 형태가 있네요.

00:41:14.744 --> 00:41:24.393

그런데 두 가지에 있는
서술부에 행위들이 나옵니다.

00:41:24.493 --> 00:41:26.594

그러면 똑같이 가면 돼요.

00:41:26.694 --> 00:41:28.791

애도 절대 시제가 있고

00:41:28.891 --> 00:41:31.092

애도 절대 시제가 있고요.

00:41:31.192 --> 00:41:33.657

그런데 애는 상대 시제도
가지고 있어요.

00:41:33.757 --> 00:41:35.262

관형절 안은 문장,

00:41:35.362 --> 00:41:37.597

청소하시는 어머니, 읽은
책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41:37.697 --> 00:41:39.711

절대 시제 뭐예요? 빼앗겼다.

00:41:39.811 --> 00:41:43.124

과거죠, 내가 말하고 있는 시간
이전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죠.

00:41:43.224 --> 00:41:46.738

읽은 거 언제 벌어졌어요?

00:41:46.838 --> 00:41:49.723

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
이전에 이미 일어났어요.

00:41:49.823 --> 00:41:51.569

역시 과거예요.

00:41:51.669 --> 00:41:56.352

그다음 상대 시제 어떻게 됩니까?

00:41:56.452 --> 00:42:00.769

상대 시제는 이 사건이 이 사건을
기준으로 언제 벌어졌냐.

00:42:00.869 --> 00:42:04.780

빼앗긴 사건하고 읽은
사건은 순차적이죠.

00:42:04.880 --> 00:42:06.867

그러니까 읽은 거를 먼저 했고

00:42:06.967 --> 00:42:09.232

그리고 다 읽은 그
책을 빼앗긴 거죠.

00:42:09.332 --> 00:42:13.348

이해 됩니까? 과거예요.

00:42:13.448 --> 00:42:18.749

만약에 형이 내가 읽는 책을
빼앗았다,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?

00:42:18.849 --> 00:42:22.669

읽는 책, 그러면 내가
읽는데 빼앗은 거니까

00:42:22.769 --> 00:42:25.586

읽는 사건하고 빼앗는 사건이
동시에 벌어진 거예요.

00:42:25.686 --> 00:42:30.590

그런데 내가 읽은 책이니까 읽는
행동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.

00:42:30.690 --> 00:42:32.404

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?

00:42:32.504 --> 00:42:35.401

읽은 행동은 이미 끝났고
그다음에 뭐가 벌어졌어?

00:42:35.501 --> 00:42:37.100

빼앗는 사건이 벌어졌어.

00:42:37.200 --> 00:42:41.553

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사건보다
과거에 벌어진 사건이 되는 거죠.

00:42:41.653 --> 00:42:44.502

그래서 상대 시제가 과거가 나와요.

00:42:44.602 --> 00:42:46.975

다음 문장.

00:42:47.075 --> 00:42:49.207

바깥에 뛰어든다가 서술입니다.

00:42:49.307 --> 00:42:51.627

주어는요? 그가 뛰어들어요.

00:42:51.727 --> 00:42:55.060

그다음에 서술어가 달리다죠.

00:42:55.160 --> 00:42:57.215

뭐가 달리다? 열차가 달리다.

00:42:57.315 --> 00:42:59.385

주어가 지금 생략돼
있다고 보면 되겠죠.

00:42:59.485 --> 00:43:02.374

이게 지금 관형절 안은
문장이 형성이 됐고.

00:43:02.474 --> 00:43:05.944

이랬을 때 뛰어 든다,
서술어 부분.

00:43:06.044 --> 00:43:09.645

달리다, 서술어 부분
둘 다 사건이 벌어진 거죠.

00:43:09.745 --> 00:43:10.979

기준을 따져볼까요?

00:43:11.079 --> 00:43:13.441

애는 절대 시제.

00:43:13.541 --> 00:43:16.021

뛰어 든다, 말하고 있는
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.

00:43:16.121 --> 00:43:19.896

그러니까 애는 현재가 되겠죠.

00:43:19.996 --> 00:43:23.049

달리는, 이거는요?

00:43:23.149 --> 00:43:30.590

뻔하네요, 애도 지금 절대 시제는
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야만.

00:43:30.690 --> 00:43:34.799

그리고 상대 시제를
뭐로 잡을 수 있다?

00:43:34.899 --> 00:43:39.613

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, 현재.

00:43:39.713 --> 00:43:41.870

즉 달리는 것도 지금
하고 있는 거고

00:43:41.970 --> 00:43:43.684

뛰어 뜨는 것도 지금
하고 있는 거고

00:43:43.784 --> 00:43:45.049
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니까

00:43:45.149 --> 00:43:46.961
상대 시제 역시도 현재가
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43:47.061 --> 00:43:51.207
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거는
헛갈려하는 거예요, 자꾸.

00:43:51.307 --> 00:43:53.201
형태를 보고 헛갈려하지 마세요.

00:43:53.301 --> 00:43:54.951
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

00:43:55.051 --> 00:43:56.553
뭐를 따져봐야 된다?

00:43:56.653 --> 00:43:59.677
생각을 하고 정말 사건과
사건을 순차적으로 배열하면

00:43:59.777 --> 00:44:02.762
절대, 상대 이런 거 잘
나올 수 있습니다.

00:44:02.862 --> 00:44:05.048
그다음.

00:44:05.148 --> 00:44:07.649
시간 표현을 다룰 때는
시제만 있는 게 아니라

00:44:07.749 --> 00:44:12.521
동작상이라는 게 같이 있어요.

00:44:12.621 --> 00:44:15.063
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

00:44:15.163 --> 00:44:20.130
동작상입니다.

00:44:20.230 --> 00:44:23.520
역시나 동사 쪽에 적용을
해야 되거든요.

00:44:23.620 --> 00:44:27.212
그래서 실제 이 동작이
언제 벌어졌느냐.

00:44:27.312 --> 00:44:29.550
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
되느냐고 했을 때

00:44:29.650 --> 00:44:31.631
완료, 이미 끝난 문제가 있고

00:44:31.731 --> 00:44:35.076

아니야, 지금도 이루어지고
있는 상황으로 진행.

00:44:35.176 --> 00:44:36.565
이렇게 나눕니다.

00:44:36.665 --> 00:44:38.994
그래서 완료와 진행상 두
가지로 쪼개질 텐데요.

00:44:39.094 --> 00:44:42.860
먼저 첫 번째, 아이들이
도시락을 먹고 있다.

00:44:42.960 --> 00:44:47.677
대표적인 예가 되겠죠, 고 있다.

00:44:47.777 --> 00:44:50.076
보조 용언인 있다를
지금 써주고 있죠.

00:44:50.176 --> 00:44:51.623
그래서 본용언, 보조 용언인데.

00:44:51.723 --> 00:44:55.122
먹고 있다, 이렇게 되면 지금
동작이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

00:44:55.222 --> 00:44:58.118
계속 진행되고 있는
것임을 알 수 있어요.

00:44:58.218 --> 00:45:00.110
또 아 가다 구조.

00:45:00.210 --> 00:45:04.700
빨래가 잘 마르 아 가다.

00:45:04.800 --> 00:45:07.532
다 먹어 가다, 이런 식으로 쓴다면

00:45:07.632 --> 00:45:11.509
역시나 진행이 이루어지고
있는 거죠.

00:45:11.609 --> 00:45:13.020
진행상입니다.

00:45:13.120 --> 00:45:15.763
다음, 이러면 아주
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.

00:45:15.863 --> 00:45:18.858
나는 요즘 살을 빼는 중이다.

00:45:18.958 --> 00:45:21.864
그러면 빼는 그 행위가
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

00:45:21.964 --> 00:45:23.789
굉장히 노골적으로

보여주는 예입니다.

00:45:23.889 --> 00:45:28.536
이번에 애네들은 본용언, 보조 용언의
구조를 많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

00:45:28.636 --> 00:45:29.882
애는 아니죠.

00:45:29.982 --> 00:45:31.644
애는 지금 이게 서술어로 봐야 되고

00:45:31.744 --> 00:45:32.694
애는 관형어니까.

00:45:32.794 --> 00:45:35.126
그런데 애는 또 연결어에서도
이런 거를 적용해줘요.

00:45:35.226 --> 00:45:37.764
뭐냐하면 오빠는 자면서 코를 곤다.

00:45:37.864 --> 00:45:42.632
그러면 자는 행동 속에서 코를
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

00:45:42.732 --> 00:45:45.194
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
진행되는 과정 속에서

00:45:45.294 --> 00:45:47.070
코를 고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.

00:45:47.170 --> 00:45:49.779
그래서 이것도 지금
진행인데, 어미죠.

00:45:49.879 --> 00:45:51.267
어미가 면서 같은 거.

00:45:51.367 --> 00:45:55.274
그래서 이런 게 진행상을 만들
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

00:45:55.374 --> 00:45:59.371
그런데 밑에, 왜 주의해야
된다고 갖다 뵈을까요?

00:45:59.471 --> 00:46:01.412
여기 지금 뭐를 썼어요?

00:46:01.512 --> 00:46:03.785
고 있다가 썼죠.

00:46:03.885 --> 00:46:07.638
위에 있는 거를 적용한다면 애도 역시
진행이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?

00:46:07.738 --> 00:46:13.827
그런데 애는 진행일 수도
있고 완료일 수도 있어서

00:46:13.927 --> 00:46:18.733

주의를 요해야 되는
중의문이 형성이 됐어요.

00:46:18.833 --> 00:46:22.713

우리가 중의문이라는 것은
어떠한 문장에 의미가

00:46:22.813 --> 00:46:24.761

2개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.

00:46:24.861 --> 00:46:30.612

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있다
했을 때 진행으로만 여길 수 있는데

00:46:30.712 --> 00:46:33.421

애는 왜 진행, 완료가
다 적용이 되느냐.

00:46:33.521 --> 00:46:36.803

일부 단어에서 이런
게 형성이 됩니다.

00:46:36.903 --> 00:46:38.772

선수들이 신발을 신고 있다.

00:46:38.872 --> 00:46:41.730

이러면 신은 상태를
나타낼 수 있어요.

00:46:41.830 --> 00:46:44.611

그래서 선수들이 지금
신발을 신고 있다.

00:46:44.711 --> 00:46:46.840

맨발이 아니라는 이야기.

00:46:46.940 --> 00:46:49.845

그런데 지금 전부 다
경기장에 나가기 위해서

00:46:49.945 --> 00:46:52.375

이제 신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.

00:46:52.475 --> 00:46:54.053

그러면 뭐죠? 진행이
될 수 있는 거죠.

00:46:54.153 --> 00:46:57.143

신은 게 끝난 건지 그리고
상태가 지속되는 건지

00:46:57.243 --> 00:47:01.662

아니면 동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에
대한 구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.

00:47:01.762 --> 00:47:06.098

그래서 이런 문장이면
중의문이 형성이 되고요.

00:47:06.198 --> 00:47:07.460
다음.

00:47:07.560 --> 00:47:11.590
이번에는 완료의 행위를 보여주고
있는 어미들 뭐가 있을까요?

00:47:11.690 --> 00:47:12.797
보조 용언.

00:47:12.897 --> 00:47:15.720
먼저 아 있다.

00:47:15.820 --> 00:47:17.633
이거 오해하기 딱 좋아요.

00:47:17.733 --> 00:47:20.091
아이들이 미끄럼틀에 앉아 있다.

00:47:20.191 --> 00:47:21.955
완료예요, 진행이에요?

00:47:22.055 --> 00:47:27.773
앉아 있다 그러면 진행이요,
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.

00:47:27.873 --> 00:47:29.203
그래서 지금 여러분,

00:47:29.303 --> 00:47:32.267
완료상하고 진행상에서 헛갈리는
게 딱 하나가 있어요.

00:47:32.367 --> 00:47:34.297
뭐냐면 저 아 있다 구조예요.

00:47:34.397 --> 00:47:40.048
아 있다가 완료의
대표적인 구조입니다.

00:47:40.148 --> 00:47:43.802
선생님이 교탁에 기대어 있다.

00:47:43.902 --> 00:47:47.588
완료예요, 진행이에요?

00:47:47.688 --> 00:47:52.433
완료예요,
저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.

00:47:52.533 --> 00:47:54.187
바뀌볼게요.

00:47:54.287 --> 00:47:56.603
기대어 있다, 라고 하면
어 있다를 쓴 건데

00:47:56.703 --> 00:47:58.210
기대어 있다는 안 움직이죠.

00:47:58.310 --> 00:48:00.828

그런데 기대고 있다, 이렇게
하면 어떻게 됩니까?

00:48:00.928 --> 00:48:02.046
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죠.

00:48:02.146 --> 00:48:04.014
기대는 동작이 지금
진행되는 거예요.

00:48:04.114 --> 00:48:05.190
차이가 생겼죠?

00:48:05.290 --> 00:48:06.949
다시, 기대 있다.

00:48:07.049 --> 00:48:08.699
기대고 있다.

00:48:08.799 --> 00:48:13.921
아까 전에 고 있다가 진행의
대표적인 경우거든요.

00:48:14.021 --> 00:48:16.582
아 있다, 어 있다는 완료예요.

00:48:16.682 --> 00:48:18.798
그런데 왜 우리는
진행이라고 생각하느냐.

00:48:18.898 --> 00:48:23.704
기대어 있다 하면 시간이 계속
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.

00:48:23.804 --> 00:48:26.465
그런데 기본 용어가 뭐라고요?
동작상.

00:48:26.565 --> 00:48:30.149
동작이 진행이 아니라 상태가
진행되고 있는 거예요.

00:48:30.249 --> 00:48:32.878
여러분, 상태의 진행은
진행이라고 하지 않아요.

00:48:32.978 --> 00:48:35.158
이해 되시죠? 동작이
움직여야 돼요.

00:48:35.258 --> 00:48:37.973
그래서 기대고 있다, 진행.

00:48:38.073 --> 00:48:40.134
기대어 있다, 완료.

00:48:40.234 --> 00:48:44.203
다시, 앓아 있다, 앓고
있다랑 비교해보면 됩니다.

00:48:44.303 --> 00:48:47.122

아이들이 미끄럼틀에 앉고
있다 그러면 진행이지만,

00:48:47.222 --> 00:48:50.249
앉아 있다고 하면 움직이지
않아요, 이 상태에서.

00:48:50.349 --> 00:48:53.826
그래서 상태가 진행되는 거는
동작상과는 관련이 없다.

00:48:53.926 --> 00:48:55.214
완료의 개념이다.

00:48:55.314 --> 00:48:56.470
대표적인 아 있다.

00:48:56.570 --> 00:48:58.877
다음요, 사랑니를
아예 뽑아 버렸다.

00:48:58.977 --> 00:49:02.570
우리 보조 용언 ~해 버리다, 라고
하면 완료성이 이미 있다고 배웠잖아요.

00:49:02.670 --> 00:49:04.330
뽑아 버렸다, 끝냈어요.

00:49:04.430 --> 00:49:06.712
더 이상의 행위는 없어요.

00:49:06.812 --> 00:49:10.098
다음, 나갈 때 문을 열어 놓거라.

00:49:10.198 --> 00:49:12.062
여러분, 이거 오해
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

00:49:12.162 --> 00:49:14.517
놓다는 용어가 보조
용언이 있을 때에는

00:49:14.617 --> 00:49:16.787
그거 뭔가 동작이 진행될
거라고 생각하는데

00:49:16.887 --> 00:49:20.344
열어 놓으라는 이야기는 연
상태로 놔두라는 이야기에요.

00:49:20.444 --> 00:49:20.939
완료가 된 겁니다.

00:49:21.039 --> 00:49:22.948
열어 두어라 역시.

00:49:23.048 --> 00:49:28.005
아 놓다, 아 두다 이런 표현들 전부 다
완료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되겠죠.

00:49:28.105 --> 00:49:32.557

아까 전에 면서가 진행을
나타내는 거라면

00:49:32.657 --> 00:49:34.585
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?

00:49:34.685 --> 00:49:38.593
밥을 먹으면서 산책 가자는
먹으면서 나가는 거니까 진행이죠.

00:49:38.693 --> 00:49:43.017
그런데 밥을 다 먹고서,
고서라는 어미.

00:49:43.117 --> 00:49:44.966
끝났어요, 그리고 전환이 되고

00:49:45.066 --> 00:49:47.448
그다음에 산책 나가는
행위가 이루어집니다.

00:49:47.548 --> 00:49:49.987
그러면 애는 뭐가 된다?
완료가 되는 거죠.

00:49:50.087 --> 00:49:52.925
그래서 연결 어미로도 완료를
형성해줄 수 있는 게 되었고요.

00:49:53.025 --> 00:49:55.270
그다음, 밑에 있는
예문 보도록 할게요.

00:49:55.370 --> 00:49:57.926
나도 그 학원에 다니게 되었다.

00:49:58.026 --> 00:50:01.158
완료예요, 진행이에요?

00:50:01.258 --> 00:50:03.766
이게 완료도 진행도 사실 아닙니다.

00:50:03.866 --> 00:50:05.495
그래서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

00:50:05.595 --> 00:50:09.245
이게 완료상과 진행상 두
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

00:50:09.345 --> 00:50:13.299
하나는 예정상이라는 게 있어요.

00:50:13.399 --> 00:50:17.189
이것도 보기로 주어지게
되면 해결을 보면 되겠는데

00:50:17.289 --> 00:50:18.958
어려운 거는 없을 거예요.

00:50:19.058 --> 00:50:21.289
왜냐하면 이거는 나도 그

학원에 다니게 되었다.

00:50:21.389 --> 00:50:24.670

이거는 끝난 일도 아니고
진행되는 것도 아니고

00:50:24.770 --> 00:50:26.730

앞으로 그러할 거라는 거죠.

00:50:26.830 --> 00:50:28.978

그래서 이런 거에
예정상을 집어넣어준다면

00:50:29.078 --> 00:50:31.174

적용해야 될 예문이라고
보면 되겠습니다.

00:50:31.274 --> 00:50:35.833

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죠.

00:50:35.933 --> 00:50:38.326

시제, 그리고 부정
표현까지 공부를 했고요.

00:50:38.426 --> 00:50:41.773

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부분이
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

00:50:41.873 --> 00:50:45.231

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사동과
피동 부분을 공부할 것이고요.

00:50:45.331 --> 00:50:47.825

그리고 핫해요, 정말 핫해요.

00:50:47.925 --> 00:50:49.397

그게 인용 표현입니다.

00:50:49.497 --> 00:50:51.502

그래서 두 가지 파트를
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50:51.602 --> 00:50:53.183

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